

# 반기문 총장 “여수박람회 적극 돕겠다”

## 축하조찬회서 김총석 시장에 밝혀 5박6일 방한 일정 마치고 뉴욕 출국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해 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수시에 따르면 김총석 여수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재선 축하조찬회에서 반 총장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 환담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 총장에게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유엔이 참여토록 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유엔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에 대해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박람회 성공 개최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반 총장은 지난 2009년 8월 여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람회 유엔 전시관 설치를 약속한 데 이어 지난 2월 23일 공식 참가의사를 통보했다. 최근에는

구삼열 전 서울관광마케팅 사장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 담당 공동 특별대표에 임명했다.

한편 반 총장은 12일 오전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찾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한데 이어 외교부 직원 3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범국민 모금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아프리카 대륙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온정 어린 도움을 호소했다.

13일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 주최한 비공식 만찬에 참석해 공로명, 홍순영, 유영환, 이정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 연임을 성원하고 격려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유엔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14일에는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연임 이후 처음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뒷행치마을을 찾아 선상에 성묘를 마치고 사당 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행치마을을 방문, 모친 신선순 여사와 감격의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기념식수, 생가 방문, 핸드프린팅 등의 행사 일정을 소화한 뒤 평화랜드 야외무대에서 열린 군민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사무총장 연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

으로 지난 9일 국빈 방한한 반 총장은 이날 고향방문을 끝으로 5박6일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출국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DJ 정신 계승 열기 뜨겁다

## 광주서도 2주기 추모 행사 다채

김대중 전(前) 대통령 서거 2주기(18일)를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사)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 광주 YMCA 무진관에서 민주당 광주·전남도당,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추모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문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각 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16일부터 18일까지 YMCA 무진관에서 시·도민 추모분향소도 마련한다. 분향소 주변에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 캠페인도 가질 예정이다. 또 18일 오후 7시에는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6·15 남북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하는 추모 문화제도 열린다. 전남에서는 18일 오전 10시 전

남도청 앞에서 목포시청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거행된다.

추모 문화행사도 마련됐다. 전남도 주관의 추모 뮤지컬과 추모 문화제가 20일 오후 시민문화체육센터와 목포 산정농공단지 아회무대에서, 목포 시립교향악단의 추모음악회는 21일 오후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의도에서도 17~18일 추모 음악회, 극단 것들의 퍼포먼스, 진도 씨김국, 한화 및 분양 등의 행사가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목포시-무안군 ‘남악’ 명칭 갈등 확산

## 목포시 ‘남악동’ 사용 놓고 무안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

목포시와 무안군 사이에 ‘남악’ 명칭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는 12일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남악신도시 인근에 신설되는 동명으로 ‘남악동’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는 문제를 놓고 무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옥암지구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행정수요가 증가해 분동(分洞)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동되는 지역의 동이름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목포시는 분동될 지역의 주도로가

남악로(南岳路)이고 주소 또한 남악1로, 남악2로로 부여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남악이라는 명칭의 인지도와 맞고, 남악로가 무안지역까지 이어지는 연속성과 포용성을 지닌 명칭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무안군 일부 지역 이장단과 도의원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남악동 명칭을 무안군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목포시가 무안군을 흡수 통합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등의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목포시에는 무안군 삼향면과 같은 명칭의 삼향동

이 있고, 원도심에 무안읍과 같은 무안동이 있지만 이런 명칭을 사용할 때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동 명칭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자치단체 고유 행정행위인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안지역 일부 주민은 전남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목포시가 옥암지구 신설동 명칭을 남악동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악이란 명칭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의 고유명칭으로 도청 소재지 지정 이후 남악신도시로 불리고 있는데 목포시가 남악리 인근 옥암지구 신설동의 이름을 남악동으로 하는 것은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se@

# MB “권력·교육·토착비리 철저 수사를”

##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임명장

### 한 총장 “부정부패·중복직의 세력과 전쟁”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 비리와 교육비리, 토착형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재진 법무 장관과 한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 장관과 한 총장에게 “검찰 스스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도록 두 분이 이끌어달라”면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에 선 선거들이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가 바로 가게 하는 데 있어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책무를 가질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해달라”면서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부터 공직 집무에 들어간 한상대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 중복직의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만, 무책임 등 검찰 내부의 적과 먼저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8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법치주

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부정부패, 중복직의세력, 검찰 내부의 적 3가지를 구체적인 전쟁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 총장은 ‘중복직의세력의 척결’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지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에 무게가 실렸던 검찰 수사에서 앞으로 ‘공안사건’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 “지나친 자의식 경계”

### 황희철 법무부 차관

### 28년 검사생활 마무리

광주 출신인 황희철(54·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정 부과전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28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황 차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국민이 우리를 보는 시각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의 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나친 자의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차관은 “법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신뢰, 사랑은 변한다”며 “오로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우리 법부 검찰로서는 자의식의 과잉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YS, 대선자금 3000억 국민에게 사죄해야”

## ‘6공 황태자’ 박철언 밝혀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0억원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온당한 자세”라고 밝혔다.

‘6공 황태자’로 불린 박 전 장관은 경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1992년 대선 당시 3000억원이 당의 공식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얘기는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00억원이 공식 선거자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당의 핵심 간부들이 수입지출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MBC 라디오에도 출연, “김 전 대통령이 (외병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문병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돈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준 돈이 3000억원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 돈은 20억원”이라며 “3000억원과 20억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길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인cent 사용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 50% 확정**

기준요금(사용전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주)동성애어텍 ☎062-512-1180 / H,P 011-659-7001**